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아모스-

아모스 5:21-24, 마태복음 23:23-26

정윤돈 목사님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작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다. 음악적 재능은 없는데, 그렇게 성가대 활동을 했던 덕분에, 악보를 볼 수 있게 되도록 도움을 받은 것 같다. 평생 해야 하기 때문에, 중고대학생들도 학원에 다니고 하느라 바쁘겠지만, 찬양대에 참여하면 신앙에 아주 유익할 것이다. 찬양대석에 앉으니가 목사님과 가까워서 메시지도 잘 기록하고 하면서 램뉘트 때를 보냈는데, 그러다가 목회자의 길까지 온 것 같다. 중고등부도 한 번 씩은 찬양대에 있으면 좋겠다. 연습도 참여하고 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들이니까,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천국에 가면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나와 있다. 그 찬양을 앞당겨서 경험하도록,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론 : 아모스서 개관

오늘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한다.

(1) 우선 아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모스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60년~755년 전쯤에 기록된 책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왕국 역사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영토와 경제력이 팽창해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였다. 성경에 보면 남 왕조의 국경은 애굽까지 이르렀고, 북 왕조는 시리아까지 팽창해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때의 시대가 이스라엘 왕국 역사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영토가 넓었고, 경제가 풍요하고 부유한 시대였다. 성경에 보면 그 국경이 애굽까지 이르렀고, 북 왕조는 이스라엘 끝까지, 시리아까지 팽창해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북쪽에 있었던 앗수르 같은 강한 나라에 내분이 많이 있었다. 애굽도 마찬가지로 다. 애굽도 남왕조, 북왕조가 있었는데, 그 속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약소국을 침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대였는데, 마침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었지 않나. 그래서 관세를 많이 걷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약한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다. 약간 착각할 수 있는데, 제사도 많이 지내고 헌금도 많이 했다. 암4:5에 보면, “아침마다 너희 회생을.”

여러분, 소 한 마리는 몇 백 만 원이 된다. 그런데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아침마다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3일마다 십일조를 드렸다고 한다. 여러분, 십일조를 잘 하시는가? 과거에는 십일조를 1년에 한 번씩 했다. 농사를 지을 때니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십일조를 계산하기가 좋다. 그런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그것도 순이익이 있으면 팬찮은데 십일조를 하기 쉬운데, 적자만 쌓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활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다. 빚이 많은 분들도 다 먹고 사시는 것은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 많은 헌금을 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 반면, 잘못되면 항상 마이너스고 빚을 지게 되고, 헌금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입장이 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양심이 아주 맑아야 한다. 성령님과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된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 꺼려지면 안 된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사모하는 분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 빚을 졌다 해도 굶어 죽어가지는 않더라. (웃음) 그래서 그런 분은 삶의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면서 십일조를 빚을 지고 있다고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은 삶의 십일조를 드리면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풍요로웠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씩 십일조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4:5에, “너희의 기쁨하는 바라고 했다.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사회에서, 가정에서는 불의를 행한다. 멋대로 산다. 도박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뇌물을 준다.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면 된다고 말한다.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참 손바릇도 안 좋고 입바릇도 안 좋고, 삶의 버릇도 안 좋았다. 그런데 이분은 대표기도를 할 때 항상,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저물을 바라보시며.” 하신다. 그렇게 거룩한 척 기도하는데 왜 저런가 했더니, 하나님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었다. (웃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살아야 한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똑같아야 한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생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목사님,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과 내려와서 말하는 것이 똑같아서요. 어떤 사람은 다른데, 그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것은 우리 전공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 학교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똑같아야 한다.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삼중생활을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도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세상에서는 멋대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헌금하고 예배드린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똑같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자, 강대국 앗수르와 애굽은 내전에 빠져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경제가 성장하니까 빈부의 격차가 발생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 부강한 사회 이면에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교지도자들도 그러했다.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다. 이런 모습이 중세 때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나. 항상 그런 부조리가 반복되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게 된 아모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아모스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아모스는 드고아 시골의 목동 출신이었다. 그 이름의 뜻은 ‘짐 진 자’이다. 일용직 노동자 같은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니까 ‘너는 누구냐’ 하는 반응이 많았다. 암6:14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배경이 훌륭한 배경이 아니었다.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다. 목자였고 뽕나무를 쳤다는 것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그때그때 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무식한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보내신 것이다.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다.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로 갔으니 말투도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너는 왜 여기에 왔느냐, 여기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로 가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모스는 응답을 받았는데,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되었다. 고전1:26에 보면, “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초라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현장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다윗 왕에게 메시지를 주었던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 이름으로 기록한 성경이 없는데, 아모스는 자기 이름으로 된 선지서를 글로 기록하여 남겼던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1. 아모스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1) 첫째로, 아모스서는 당시 주변의 민족들과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면서 악한 행위를 같이 했다. 그래서 같이 예언을 했던 것이다.

① 주변 나라들의 악한 행위들이 무엇이었는가? 암1:9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예뻐에 넘겼음이라.” 무슨 말인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팔아넘긴 것이다. 암1:13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뱀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이런 잔인한 행위를 한 것이다.

② 둘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악한 행태다. 암2:6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아넘겼다. 신 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넘겼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한 것이다. 암2:7에,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이 없으니까 머리를 발로 밟고 무시했다. 인권을 유린했다. 암2:8에,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스라엘은 아침저녁의 기온차가 컸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다. 그러니까 옷을 이불처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저당잡아서 안 주는 것이다. 암4:1에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기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는 이 구절을 보고 묵상하다 보니가, 오늘 우리의 현상이 떠올랐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일찍 잔갑하고 성공한 사람이 나이는 많지만 자기보다 젊음이 낫은 사람을 불러서 무시하면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장면들이다. 직위는 낮지만 자기 집에 가면 연연히 가정인데, 이런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고, 직업, 빈부 정도를 가지고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일들이다. 암5:12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또 어떤 악을 행했는가? 암8:5에서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예배를 작게 하고 세례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절기는 다 지키면서 저울을 속인다. 계명의 내용을 속이는 것이다. 중국에 갔더니 조선족 목사님이 중국에서는 하루도 살기 싫다고 하더라. 음식 하나를 먹어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조과정이나 공정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 묻지 말고 하더라. 사회가 먹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도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안 된다. 암8:6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계락을 꾸뻐던 것이다.

(2) 두 번째로 아모스서에는, 불의하고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온다. 그래서 암7:1-9:10에 보면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지진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할 때, 수많은 일본 군인들이 죽었다. 미국이 개구리 작전이라고, 건너뛰면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 전투를 치르면서 일본 군인들이 50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렇게 몇 만 명이 죽으면 정신을 차리고 포기해야 하는데, 그래도 포기를 안 하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성실해서 그런지, 그렇게 죽는데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같은 큰 도시는 계속 폭격을 했다.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몇 십만 명이 죽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암4:4-13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악한 인간들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다. 암4:6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암4:8에, “두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를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정신차리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런 크리스천이 많다. 어떤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밀바닥으로 가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더 교만해지고, 더 신앙 중심이 되지 않고 많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암4:9에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팔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흉년이 들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그 풍요로웠던 나라에 문제가 왔는데도 정신을 안 차린다. 회개하지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암4:10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갈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문제 오고, 또 문제 오고, 또 문제가 온다.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에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암4:11에, 성이 다 파괴되고 불이 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

① 그것이 암5:4이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나?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찾을 때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암5:6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벨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개인도 민족도 가정도 사업도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② 어떤 여호와이신가? 암5:8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랑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는가. 바를 수 있는가.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직 예수 할 수 있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우리에게 이면계약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결국은 회복의 은혜까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③ 암9:14에 보면,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암9:15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뻗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했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뻗었던 것을 다시 심으시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2. 정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왜 생뚱맞게 갑자기 정의 이야기인가? 암5:24에,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 아모스사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범은 최고의 수준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신앙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요 당연한 수준의 정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의를 신앙의 높은 수준이나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강에 물이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본이다. 정의, 공범이 흐르는 것은 하수가 흐르는 것과 같은 기본이다. 그런데 물은 흐르지만, 옆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런데 물 자체가 흘러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본도 없고 정의도 없고 정직함도 없으면 심는다고 뭐가 되겠는가. 복음적인 삶이란, 기본적인 수준, 초급적인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수준, 최상의 수준을 향해서 겸손히 달려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깨달으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정의가 구현되고 주장되고 실현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정의로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 200만 권이 팔렸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면서 가장 읽히지 않은 책이라고 한다. (웃음) 나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다. 그런데 지금 그 책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출판사끼리 자기가 이 책을 출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싸우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적어내는 출판사에는 정의가 없다. (웃음) 정의로 문제 해결이 되는가? 안 된다. 정의로는 원죄 문제, 구원 문제, 사탄의 문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정의로운 교회를 만들고 싶은가? 교회가 정의로워야 하는가?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정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는지 조사해 보라고 했다. 장로님이 조사해서 보고했다. “알고 보니까 다 잘 하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했다. “오늘부터 절대 잘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잘 할 필요 없다. 은혜롭게 하면 된다. 그 후로 엄청 부흥했다고 한다. 잘 하고, 정의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래도…….” 무슨 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기본이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정의롭게 해 보시겠는가? 다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 지옥이 된다. 다 깨진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지만, 그것을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 원죄, 타락, 무속, 점술, 우상,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왜 그랬느냐, 어째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중독자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 탈산 청소년에게 정의를 부르짖어야 하는가? 아니다. 생각을 다 바꿔야 한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정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와 버린다.

(3) 그래서 인간 사회와 가정과 개개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암8:11-13에 이런 말이 나온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의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사회가 강박해지고 문제가 오는 것이다. 암8:12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를 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빈에 굉장히 유명했던 야구해설가가 자살했다. 야구 해설을 참 잘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분에게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른 무언가,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말씀이 필요했다.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중고생들이 납친, 여친 없으면 갈급하고, 여기 바꾸고 저기 바꾸고, 이것 먹으러 다니고 저것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잘 생긴 사람 따라다니고 음악 듣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더 지옥같아진다. 그렇게 사는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연예인들이 다 황폐해져 있다. 유명한 연예인들은 몇 분 만에 공연 표가 매진된다. 그런데 공연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황폐하다. 미래가 없다. 불안, 걱정애 사로잡혀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기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 외모가, 즐거움이, 여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란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결론 :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결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한다.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1) 이것을 더욱 더 잘 알고 행해야 되겠다. 오늘 제목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복음, 언약적, 신앙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더욱 굳게 붙잡고 누려야 한다. 이것이란 오직이다. 복음이다. 진도, 선교다. 예배, 헌금, 십일조, 찬양, 성도간의 교제다.

(2)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복음은 편협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공평, 정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것이 사회복지다. 이런 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이런 것이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합리적,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저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완전한가?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 나라 빚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한다. 공약을 남발하다 보면 몇 조 원씩 빚이 쌓이다가 결국 국가가 망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민주주의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판단을 지도자와 국민이 해야 한다. 내 중심,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가 나와야 한다. 더 훌륭한 정치, 경제, 문화로 성숙시켜야 한다.

(3) 이 두 가지를 사회 현장에 확장시키는 그 운동을 하자, 그 후대를 만들자는 것이 램턴 운동이고, 제2의 RUTC운동이다. YMCA를 만들었다니 복음이 약해졌지 않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복음, 진도,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이 사역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장로님, 램턴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도 없고 부족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성경적, 복음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